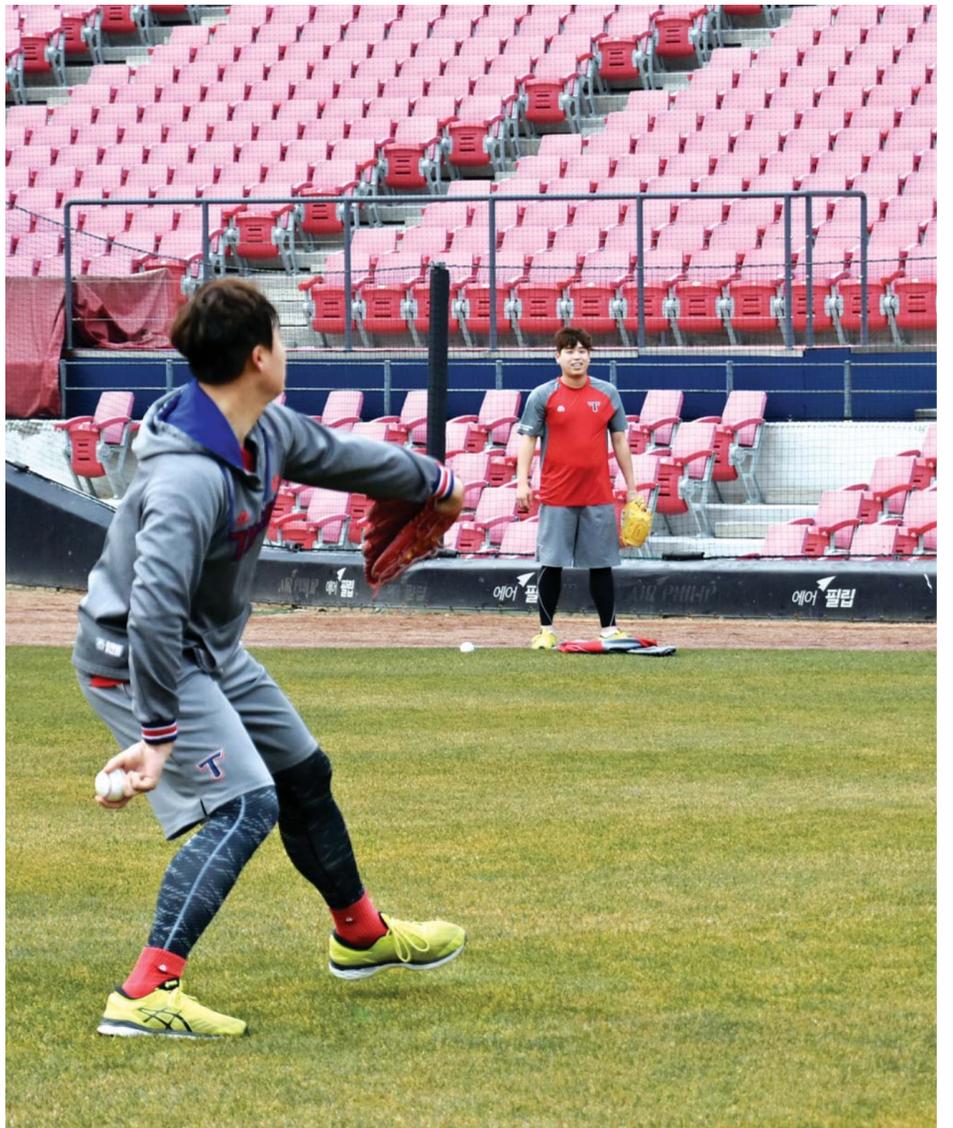


땀에 젖은 세친구의 성탄... "내년 KIA 마운드 기대해"



KIA 타이거즈의 '92동기' 문경찬, 박준표, 한승혁이 성탄절인 2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러닝과 캐치볼을 하는 등 훈련을 하고 있다.

'92 동기' 한승혁·문경찬·박준표, 크리스마스에도 웨이트 체력 단련 2월 오키나와 캠프 앞 컨디션 조절...던지고 달리며 내년 시즌 다짐

크리스마스에도 훈련은 계속됐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KBO리그는 12월과 1월 휴식기를 맞았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도 2018시즌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휴식기지만 무조건 쉬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벌써 2019시즌으로 가 있는 선수들은 12월에도 부지런히 챔피언스필드로 걸음을 했다. 성탄절로

흥겨웠던 25일에도 챔피언스필드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20번째 시즌을 앞둔 '최고참' 이범호가 몸만들기를 위해 일찍 챔피언스필드를 다녀갔고, '단짠' 들도 야구장에 모여 땀을 흘렸다. 경찰청의 인연으로 각별한 황윤호와 한승혁은 함께 웨이트를 하면서 내년 시즌 각오를 다졌다.

경찰청 선·후임 사이였던 두 사람은 황윤호가 지난 시즌이 끝난 뒤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IA로 오면서 다시 한술밥을 먹고 있다. 두 사람은 문만 열면 만날 수 있는 '이웃사촌'이기도 하다. 얼마 전에 이사한 한승혁은 "워낙 친해서 같은 곳으로 이사를 오라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윤호 형이 같은 층 맞은 편 집으로 오게 됐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내년 시즌 KIA 마운드를 이끌어 가야 할 '92 동기' 한승혁, 문경찬, 박준표도 운동으로 성탄절을 보냈다.

한승혁은 올 시즌 처음 선발 자리에 서서 가능성을 보여준 강력한 '선발 후보', 문경찬은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눈길을 끈 불펜 기대주다. 그리고 지난해를 경찰청에서 제대하고 돌아온 박준표는 불펜·선발로서도 어필할 수 있는 '전천후 투수'다. 이들은 KIA의 불확실한 2019시즌 마운드에 물음표를 지우고 느낌표를 찍어줘야 할 자원들이다. 챔피언스필드에서 의기투합한 세 친구는 점심 내기 족구를 하면서 몸을 풀었다. 실수 연발 속 웃음 가득한 놀이이자 나름의 체력 훈련이었다. 박준표의 패배로 족구 시합이 끝난 뒤 세 친구는

그라운드로 나가 캐치볼과 러닝을 하면서 2019시즌을 위한 걸음을 재촉했다. 오는 2월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시작에 맞춰 피칭 스케줄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투수조들은 일찍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다. 복귀 시즌을 앞둔 박준표는 "성탄절이라도 빨간 날이지만 우리에게도 보통의 하루다. 친구들과도 평소처럼 운동하면서 땀을 흘려서 기분이 좋다. 꾸준히 준비하면서 연말 잘 마무리하고 내년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글·사진·김여을 기자 wool@kwangju.co.kr

애플 타자 통산 최다 홈런 추신수, MLB 화제 24위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의 아시아 타자 통산 최다 홈런 신기록이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 리그(MLB)를 빛낸 25가지 이야기 중 24번째에 자리했다. 미국 NBC 스포츠는 25일 전체 25가지 화제 중 추신수,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바르톨로 콜론과 아드리안 벨트레 등 외국 국적 선수들의 기록을 하나로 묶어 24번째로 정리했다. 추신수는 5월 27일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홈런

기에서 3-3으로 맞선 연장 10회말 좌중간 펜스를 넘어가는 굿바이 홈런을 쳤다. 이 홈런으로 추신수는 '고질라' 마쓰이 히데키를 넘어 아시아 빅리거로는 최다인 176번째 홈런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올해 통산 홈런을 189개로 늘렸다. 당분간 이 기록을 깰 아시아 타자는 없어 보인다. NBC 스포츠는 한국인 타자 추신수가 마쓰이를 넘어 아시아 출신 최다 홈런 타자로 우뚝 섰다고 의미를 뒀다. /연합뉴스

'광주 세계수영대회' 입장권 내달 2일부터 판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 입장권 판매가 시작된다.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25일 "개·폐회식을 포함한 6개 종목 90세션(경기)에 대한 입장권 판매를 대회 개최 6개월 전인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조직위 입장권 누리집(https://tickets.gwangju2019.com)을 통해 내년 1월 2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입장권은 개·폐회식과 6개 종목별 경기에 총 41만9000장(89억4000만원)이 발행된다. 발행량 90% 이상인 37만장(75억원) 판매를 목표로 국내

에서 80%인 30만장, 해외에서 20%인 7만장을 판매할 계획이다. 특히 입장권 전체평균 가격은 3만원이다. 인기종목인 경영·다이빙·아티스틱은 3개 좌석 등급이며 '예선전 B석 1만원~결승전 S석 7만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수영·하이다이빙·오픈워터는 2개 좌석 등급에 '예선전 A석 1만원~결승전 S석 5만원'이다. 개회식 입장권 가격은 'B석 4만원~S석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조직위는 입장권 조기 구매 고객에게 최대 15% 할인 혜택을 주는 등 각종 할인 적용을 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현, 시작부터 강행군

내일 개막 무바달라 테니스 챔피언십 출전...세계 6위 앤더슨과 1회전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5위·한국체대·사진)이 27일부터 시작되는 무바달라 월드 테니스 챔피언십을 통해 2019시즌을 사실상 시작한다. 27일부터 사흘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자이드 스포츠 시티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는 정현과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케빈 앤더슨(6위·남아공), 도미니크 팀(8위·오스트리아), 카렌 하차노프(11위·러시아) 등 세계 정상급 선수 6명이 출전한다. 또 여자부에는 비너스-세리나 윌리엄스 자매가 나와 맞대결을 벌인다. 이 대회는 남자프로테니스(ATP) 공식 투어 대회는 아니지만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모여 치르는 권위 있는 이벤트 대회다. 12월 한 달간 태국에서 동계훈련을 치른 정현은 대회 첫날인 27일 앤더슨과 1회전 경기를 치른다. 키 203cm의 장신에 강한 서브가 장점인 앤더슨은 지난해 US오픈과 올해 워싱턴에서 준우승한 톱 랭커다. 지금까지 정현과 앤더슨은 두 차례 만나 앤더슨이 모두 2-0 승리를 가져갔다. 정현과 앤더슨 경기에서 이기던 선수는 28일 나달과 준결승을 치른다. 정현이 올라갈 경우 나달과 통산 세 번째 맞대결하게 되는데 통산 전적에서는 역

시 나달이 두 번 모두 세트스코어 2-0으로 이겼다. 반대편 대진은 1회전에서 팀과 하차노프가 맞붙고 이기던 선수가 2회전에서 조코비치를 상대한다. 정현은 이 대회를 마치면 곧바로 인도로 이동, 31일 개막하는 ATP 투어 타타오픈(총상금 58만 9680 달러)에 출전한다. 2019시즌 개막전인 이 대회에는 무바달라 챔피언십 1회전 상대인 앤더슨을 비롯해 2014년 US오픈 우승자 마린 칠리치(7위·크로아티아) 등이 나온다. 정현은 타타오픈에서 앤더슨, 칠리치에 이어 3번 시드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즌 첫 대회부터 좋은 성적을 기대할 만하다. 인도 대회를 마치면 정현은 뉴질랜드로 장소를 옮겨 새해 1월 7일에 시작하는 ATP 투어 ASB 클래식(총상금 58만9천680 달러)에 출전한다. ASB 클래식에 이어서는 1월 14일 호주 멜버른에서 막을 올리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이 정현의 다음 일정이 된다. 올해 호주오픈에서 정현은 16강에서 조코비치를 꺾는 '대이변'을 일으키며 한국 선수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 신화'를 이룩한 바 있다. /연합뉴스